

일본어 신조어 생성에 관한 일고찰

-인터넷의 발달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남중*
lkuzo84@gmail.com

이경규**
lk5120@deu.ac.kr

< 目次 >

- | | |
|-----------------------|--------------------|
| 1. 들어가며 | 4.2. 인터넷 신조어의 발생배경 |
| 2. 선행연구의 검토 | 5. 인터넷상의 신조어 생성 |
| 3. 신조어와 유행어의 개념 | 5.1. 略語에 의한 생성 |
| 4. 인터넷 신조어의 특징 및 발생배경 | 5.2. 誤変換에 의한 생성 |
| 4.1. 인터넷 신조어의 특징 | 6. 나오며 |

主 題 語: 신조어(Neologisms), 유행어(fad words), 인터넷(Internet), 略語(abbreviation), 誤変換(error-transformation)

1. 들어가며

언어는 인간의 감정을 교환하는 수단이며, 사회적 약속이다. 또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기본요소이다. 특정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문화권 내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에 의해 습득되고 숙달되어 전해져 온 생활양식인 문화의 전달 수단이 언어이며 언어 또한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의 변화가 언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조어의 생성에는 과학 기술을 비롯한 여러 학문의 발전과, 국내외의 문화 교류, 대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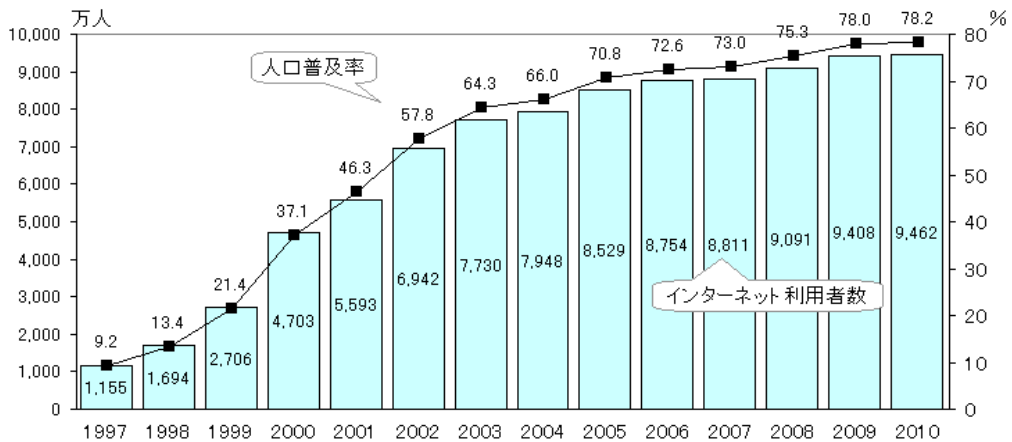
* 동의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정금나(2009) 「일본어교과서에 반영된 일본문화에 관한 조사: 특히,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2차~7차까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 발달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학문이 발전함으로 인해 새로운 전문 용어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사회의 문물들이 유입되면서 이 문물을 지칭하는 말도 새롭게 통용된다. 과거에는 언론이나 방송 매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중문화가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경계선마저 점점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이 다양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다가 단기간에 사라지는 임시적인 신조어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신조어 생성에 주된 역할을 하는 인터넷은 <그림 1>과 같이 매년 그 이용자와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그와 같은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한 순간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말에는 사회의 변화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사상, 문화까지 깃들여 있다. 그리고 신조어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 의해서도 탄생되고 있으며 그 탄생 배경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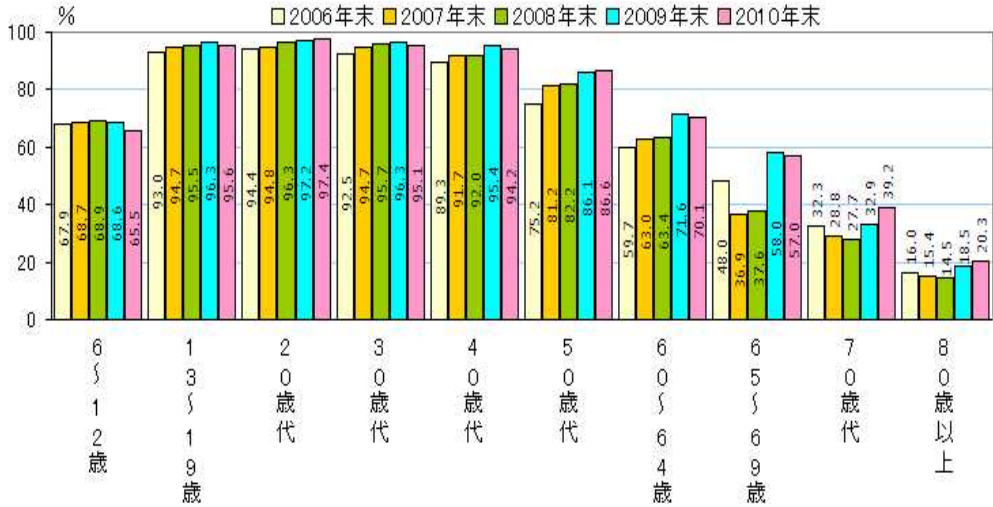
<그림 1> 인터넷 이용자 및 보급률의 추이²⁾

언어의 생성, 변천, 진화의 다이나미즘은 인터넷의 발달 등 컴퓨터 통신시대를 맞이하여 활성화되었다³⁾. 이와 같이 인터넷의 발달과 컴퓨터 통신시대는 신조어의 생성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생성된 인터넷 신조어를 분류, 분석하여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생성 과정에 있어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디어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통신 수단인 인터넷

2) 総務省(2011) 「通信利用動向調査」

3) 真田信治(2002) 『脱・標準日本語の時代』小学館文庫

상의 게시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2>와 같이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고 신조어를 창조하는 10대에서 30대까지를 인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조어가 가장 많이 탄생하는 일본 2Channel의 용어를 정리해둔 2Ch 용어집⁴⁾과, 동인용어 기초지식 게시판⁵⁾, 그리고 일본의 위키피디아⁶⁾를 이용하였다.



<그림 2>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⁷⁾

2. 선행연구의 검토

근래의 신조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조어를 젊은이의 언어라고 단정 짓고 있다. 물론 현대 사회 문화의 중심은 젊은 층으로 대부분의 신조어가 그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외교에 관련한 신조어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젊은이들의 언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이다.

米川明彦⁸⁾는 현대는 젊은이의 시대이고 문화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신어는 젊은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자,

4) <http://2channel-vocabulary.com/>

5) <http://www.paradisearmy.com/doujin/>

6) <http://www.wikipedia.org/>

7) 総務省(2011) 「通信利用動向調査」

8) 米川明彦(1995) 「新語と造語力」『日本語学』3, 4月号 明治書院

한어는 딱딱하고 어려우며 매력이 없어서 한자에 의한 신어는 적고 한편 고등교육 보급에 의해 영어 등의 외국어는 더 이상 일부 지식층의 독점물이 아니며 젊은이들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저항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米川의 기술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한자나 한어는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1970년의 「モラトリアム」, 1980년의 「新人類」, 1990년의 「おたく」시대를 지나오면서 지적수준과 전문성이 더욱 발전됨에 따라 외래어를 쓴다는 것만으로는 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외래어에 의해 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짐에 따라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신조어와 유행어를 들여다보면 한자, 한어, 고유어의 신조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양은모⁹⁾는 한국과 일본의 어휘 비교를 신세대 언어의 신조어와 유행어를 중심으로 음운, 형태, 의미 등의 어구성적 특성을 분석했으며 언어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신조어의 발생 및 사용상 특성과 그 경향을 비교했다. 양은모는 한일 신조어 어휘의 구조면에 있어서 차이점과 유행어의 공통점을 밝혔으며 양국 신세대들의 사회적, 심리적 성향과 언어 사용 양상에 있어서 비슷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미혜·이경규¹⁰⁾는 일본어 신조어 생성의 특징을 「日本語俗語辞書」 「Yahoo!新語探偵」 「ユーキャン新語・流行語大賞」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사회적, 문화적 특징과 연도별, 조어 유형별로 그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웹사이트 텍스트에 나타난 신조어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에서 착안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박미혜·이경규는 일본문화 변화의 단면이 신조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젊은이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채¹¹⁾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신조어와 유행어를 통해 현대 일본의 이슈화된 일들과 정치, 경제, 사회를 이해하고, 변해가는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新語・流行語, 大賞語를 중심으로 시대상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김현채는 首相과 관련된 大賞語를 통해 발생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는데, 정치 관련 신조어에 중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조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의미 해석이나 통계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 연구는 그다지 없는 실정이다.

-
- 9) 양은모(2007) 「한일 어휘 비교 연구 : 신조어 및 유행어를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박미혜·이경규(2011) 「일본어 신조어 생성의 특징에 관한 고찰 : 웹사이트 텍스트의 용례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11) 김현채(2011) 「신어·유행어를 통해 보는 현대 일본의 시대상 : 수상과 관련된 신어·유행어 대상어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본고에서는 인터넷에서 생성된 인터넷 신조어의 용례를 조사하여, 언어적 측면 뿐 아니라 신조어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신조어와 유행어의 개념

신조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 기술을 비롯한 여러 학문의 발전과, 대내외적 문화 교류, 대중문화 발달 등의 영향으로 새롭게 생겨난 말이란 의미이다. 하지만 신조어의 대부분은 유머나 재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행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조어와 유행어의 개념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신조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이다.

新語とは「新しく現れた事物や概念に対してあるいはまた、従来からある事物や概念であっても、これを新しく言い表すために、新しく造られたことば」ということになる¹²⁾。

위의 정의에 따르면, 「신조어」란 새로이 생겨난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서, 또는 원래부터 있던 사물이나 개념이라도 이것들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말이다. 예를 들면, 「과학, 철학, 우편, 야구」 등은 새로이 생겨난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자유, 관념, 혁명」 등 예부터 쓰이던 한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은 원래 있던 사물이나 개념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말이 되는 것이다.

「유행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流行語を定義すれば、「誇張の中に娯楽性含んだ表現で、そのときどき世相・風俗を風刺したり、その発音が新鮮・奇抜であつたりして、人々の耳目を引きつけ、一時ひろく使われたり印象づけられたりしたことば」ということになる¹³⁾。

「유행어」는 오락성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며, 때로는 세태를 풍자하거나 그 발음이 신선하고 기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한 때 널리 사용된 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신조어와 유행어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 시대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12) 金田一春彦 外編(1988) 『日本語百科事典』大修館書店, p.534

13) 金田一春彦 外編(1988) 『日本語百科事典』大修館書店, p.534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신조어와 유행어는 신어의 의미 속에 포함되므로 본고에서는 유행어도 신조어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신조어의 생성에 있어서 사회적 흐름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버블경제가 붕괴된 198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인터넷 신조어의 특징 및 발생배경

현재 일본 인터넷의 기초가 된 것은, 1984년의 東京大学, 東京工業大学, 慶應義塾大学에서 실험적으로 네트워크를 엮은 JUNET이었다. 그 후 많은 대학과 기업의 연구기관이 JUNET에 참가,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1988년에는 컴퓨터 분산처리환경의 구축과 인터넷에 관한 연구 개발을 위해, 산학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인 Wide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일본 최초로 IP접속으로 인터넷에 참가했다. 같은 해, NTT가 일본의 주요도시(전국의 현청소재지)를 묶은 광케이블망을 완성했다. 이것을 1989년에 미국의 전미 과학재단 네트워크(NSFNET)에 접속하여, 많은 컴퓨터 관련 기업이 독자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 네트워크 개발의 시초가 되었으며, 이후 계속된 발전으로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은 물론, 휴대전화, 텔레비전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신조어의 생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4.1. 인터넷 신조어의 특징

말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데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가일층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과 각종 이모티콘은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 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신조어는 그 말이 만들어진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한국의 예로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실업문제를 반영한 신조어로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으면 도둑),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생겨난 새로운 말들을 인터넷 신조어로 칭한다. 그리고 사이버 머니, 스팸 메일, 이모티콘, 인터넷 관련 용어 등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터넷 유행어도 인터넷 신조어로 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인터넷 신조어를 일본에선 「인터넷 슬랭」이라고 부르고 있다.

4.2. 인터넷 신조어의 발생배경

인터넷은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1969년 미국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80년대 말 동서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알파넷은 미국 과학재단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이것이 대학이나 연구소, 정부기관, 통계기관, 기업 등 세계 모든 곳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 인터넷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1990년부터는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인터넷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현재는 학술분야 뿐 아니라 기업, 광고, 정치, 예술, 교육, 오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망으로 부상하게 되었다¹⁴⁾.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대중문화가 빠르게 변화했으며 인간의 언어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로는 언어의 축약과, 구어와 문어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의 발전에서 보이는 가장 큰 변화로서 빠른 정보 전달과 변화 그리고 인터넷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더욱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및 인터넷 상에서는 음성이 아닌 글자를 읽어 뜻을 이해하다보니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 직접적인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러한 휴대전화 및 인터넷은 매체 내의 대화에 있어서 그 생동감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은 글자나 이모티콘 등을 동원하여 느낌이나 상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음소를 더하는 등의 여러 방법에 의해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신조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조어에서도 규범적인 형식을 바꾸는 오락 기능의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 것과 다양하게 변형된 글자를 통해 쾌감을 얻는 이유로도 신조어가 탄생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이, 직업, 성별, 취미,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同人用語¹⁵⁾를 사용함으로써 동류라는 의식을 갖게 되거나 동질감을 강하게 느끼며 유대 강화를 위해 신조어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대화는 탈영역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고유 소속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탈영역화는 권위나 소속감, 책임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점 말고도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영역화된 관계망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숨기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14) KDI 경제정보센터(2000) 『디지털 경제용어』 매일경제신문사

15)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면서 생겨난 용어

자신을 숨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제도화된 영역이 주는 도덕관념이나 책임감, 의무감 등이 희박해져 탈문법성과 일상 언어에 대한 전복적인 성격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즉, 자유로운 공간에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표현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이유도 꼽을 수 있다.

5. 인터넷상의 신조어 생성

통신언어는 일상 언어와는 다른 여러 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 통신언어는 음절을 줄이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등의 방법으로 타수를 줄여 빠르고 편리하게 글자를 적으려는 경제적 동기와 형태를 바꾸어 봄으로써 통신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거나 편하게 하려는 표현적 동기, 그리고 규범에 기초를 두고 현실 공간의 말글살이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사회 심리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어울려 현재의 통신언어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¹⁶⁾.

이러한 이유 등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인터넷 신조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의 개념과 용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5.1. 略語에 의한 생성

略語란 語의 일부를 생략해 짧게 한 것으로 보통은 긴 語를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近畿日本鐵道」를 「近鉄」라고 부르는 류의 신조어를 말한다. 본고에서의 略語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그 유형이 나타난 것으로 자판의 입력이 늦은 사람 혹은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주로 채팅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발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조어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형태로서 일본의 여고생들 사이에서 만들어져 유행한 KY식 일본어도 여기에 속하며 이들 略語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인터넷 신조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미국의 예로서는 「lol」(laugh out loud), 「thx」(thanks), 「omg」(oh! my god) 등이 있으며 한국의 예로서는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볼매」(볼수록 매력있다) 등이 있다. KY식 일본어뿐만 아니라 「トリセツ」(取扱説明書), 「マンキツ」(漫画喫茶), 「シューカツ」(就職活動), 「婚活」(結婚活動) 등 일본에서는 여러 형태의 略語 신조어가 탄생되고 있다.

16) 정창웅(2004) 「통신언어의 전이 양상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 弟はほんもののDQNなの¹⁷⁾
- (2) DQN企業を見抜く方法教えます¹⁸⁾
- (3)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マジでガチなボランティア」¹⁹⁾
- (4) このお笑いコンビ、ガチ面白い²⁰⁾
- (5) 中2数学をkwsk教えろください²¹⁾

예문(1)의 「DQN」은 1994년 4월 6일부터 2002년 6월 26일까지 텔레비 아시아에서 방영된 「目撃ドキュン」이란 TV 프로그램이 어원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로 불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휴먼 다큐멘터리 방송이다. 불량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 무식한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지리멸렬한 것을 말하거나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2Channel에서 생겨나 현재는 비교적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지 이 정의가 애매해 건들건들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문(2)와 같이「DQN」에서 파생된 「DQN企業」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기준법을 무시, 잔업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부르는 말이다. 「ドキュン」「ドキュソ」²²⁾도 동일선상의 의미이다.

예문(3)의 「ガチ」는 「ガチンコ」의 약어로 「ガチンコ」란 본래 스모계의 은어로서, 스모 선수들이 격렬하게 맞붙을 때 나는 「ガチン」이란 소리로부터 진검승부를 나타내는 은어로 사용되어 왔다. 「ガチ」는 예문(3)과 같이 형용사나 부사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문(4)와 같이 접두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2000년 후반부터 1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를 중심으로 「激」, 「超」 등의 접두사와 같이 어떤 물건의 상태나, 성질, 품질에 있어서 비교적 레벨이 높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또한, 진실성을 주장할 때에 사용되는 「マジ」, 「本気」를 대신해 쓰이기도 한다.

예문(5)의 「kwsk」는 「詳しく」를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 (Ku-Wa-Si-Ku)의 이니셜로, 「詳しく教えて欲しい」의 의미로 사용된다. 「kwsk」는 2Channel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인터넷 신조어로, 2007년에 KY의 유행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KY식 일본어와는 출처와, 생략 방식이 다르다. KY식 일본어는 (Kuuki-Yomenai)와 같이 단어 단위의 이니셜로 생략하지만 「kwsk」는 문자 단위의 이니셜로 생략한다. 「kwsk」가 생겨난 후, 「wtkr」(오노마토페 わくわく 와 てかて かが 합쳐진 わくてか로 「기대가 된다」는 의미), 「ktrk」(「きたこれ」²³⁾를 생략한 말로 무언가

17) <http://netaatoz.jp/archives/5708414.html>

18) <http://kanchigai.blog.shinobi.jp/Entry/283/>

19) <http://www.majigachi.jp/>

20) <http://ja.wikipedia.org/wiki/%E3%82%AC%E3%83%81>

21) <http://uni.2ch.net/test/read.cgi/math/1334831763/>

22) 2Channel에서 가타카나 「ン」을 「ソ」로 표기하기 시작함으로 생겨난 것

가 출현, 발생했을 때 놀라움과 기대 등을 강조한 의미), 「ksk」(「かそく」의 의미로 2Channel 등의 게시판에서 스퀘트가 가속하는 것의 「加速」의 의미) 등의 신조어도 생겨났다.

- (6) 東大落ちた友達に「メシウマw」ってメール送ったらキレられたwww(24)
- (7) 食べる前に飲むのは当然だろ常考、むしろ飲めよ²⁵⁾
- (8) 今の中学生情弱すぎワロタwwwwwwww(26)
- (9) このサイトを半年ROMると得られるものは
- (10) ちょっとワロタけどやっぱり本田△²⁷⁾

예문(6)의 「メシウマ」는 2Channel의 야구 게시판에서 일본의 야구팀의 하나인 요미우리 사이언츠를 싫어하는 유저들이 「巨人が負けて今日も飯がうまい」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표현은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되고 2Channel의 프로야구 게시판 등이 생겨나면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었다. 2004년에 개설된 실황 중계 게시판에서 다용되었으며 2006년 큰 화제가 되었다. 그 후, 프로야구 게시판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게시판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他人の不幸で今日も飯がうまい」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예문(7)의 「常考」는 「常識的に考えて」를 생략한 말로서 인터넷의 게시판상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식 등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비정상적일 때 예문(7)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 후, 「常考」는 로마자로 「Jyoushikitekini Kangaete」를 단어 단위의 이니셜로 생략하여 「JK」 또는 「JK的」로 사용되었다.

예문(8)의 「情弱」는 정보나 통신 기술의 인프라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의해 생겨난 격차를 일컫는 「情報弱者」를 생략한 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충분한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저가로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정보도 모르는 유저를 일컬어 사용하기도 한다.

예문(9)의 「ROMる」는 「Read Only Member」를 단어 단위의 이니셜로 생략한 말에 동사 어미 「る」가 붙어 생성된 신조어다. 「ROM」은 2Channel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남이 게재한 글을 읽기만 할 뿐 자기 자신은 게재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ROMる」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게시판의 성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시물을 게재했을 때 「ROMれ」, 「ROMつ

23)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젯거리가 등장했을 경우 쓰는 말로 주로 ｷﾀ━━━━(ﾟ∀ﾟ)━━━━!!!! 라고 표현

24) <http://www.negisoku.com/archives/53750652>

25) <http://ameblo.jp/inkaku/entry-11237465396>

26) <http://blog.livedoor.jp/news23vip/archives/4063860>

27) <http://blog.livedoor.jp/chihhylove/archives/7174823>

てろ, 「ROMして下さい」 등 「お前黙ってろ」란 뜻으로 사용된다.

예문(10)은 대상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로 「本田さんかっこいい」가 「本田さんかっけー」로 「本田さんかっけー」가 「本田さんかくけい」로 변해 지금의 형태인 「本田△」로 생략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축구선수인 本田佳佑가 2008년 북경 올림픽 당시 발언한 말이 문제가 되어 그를 바보 취급하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나 2010년 6월에 개최된 월드컵에서 팀을 구하는 활약을 펼쳐 「本田△」는 더 이상 그를 조롱하는 의미가 아닌 정말 멋지다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의 의미까지 변하게 되었다.

전술한 여러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略語 신조어는 음절을 줄이거나 이니셜만을 적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수를 줄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를 표현하려는 경제적 이유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2. 誤変換에 의한 생성

- (11) 諸宇宙 (本来は燒酎)²⁸⁾
- (12) パンツ食った少年 (本来はパン作った)²⁹⁾
- (13) 彼はお食事券で逮捕された (本来は汚職事件)³⁰⁾
- (14) 桜今咲かず (本来は桜井正一など)³¹⁾
- (15) 砂糖と塩 (本来は佐藤俊夫など)³²⁾

위의 예문들과 같이 「誤変換」은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등에서 일본어 문장을 입력할 때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 변환의 위치를 잘못 인식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문장의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이런 「誤変換」은 컴퓨터의 보급, 휴대전화의 보급 등에 의해 더욱 더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조어에서 보이는 「誤変換」은 단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의 언어유희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되어 정착되고 있다.

28) <http://ja.wikipedia.org/wiki/%E8%AA%A4%E5%A4%89%E6%8F%9B>
 29) <http://ja.wikipedia.org/wiki/%E8%AA%A4%E5%A4%89%E6%8F%9B>
 30) <http://ja.wikipedia.org/wiki/%E8%AA%A4%E5%A4%89%E6%8F%9B>
 31) <http://ja.wikipedia.org/wiki/%E8%AA%A4%E5%A4%89%E6%8F%9B>
 32) <http://ja.wikipedia.org/wiki/%E8%AA%A4%E5%A4%89%E6%8F%9B>

- (16) 스투^乙33)
 (17) 바블^乙세대^乙도^乙나^乙이^乙되^乙나^乙이^乙다^乙34)
 (18) 프로^乙레스^乙판^乙이^乙이^乙젠^乙다^乙35)
 (19) 소^乙방^乙시^乙대^乙의^乙부^乙끄^乙다^乙36)
 (20) 인^乙대^乙사^乙로^乙읽^乙지^乙않^乙고^乙37)
 (21) 우^乙라^乙…^乙지^乙북^乙,^乙산^乙업^乙의^乙지^乙향^乙37)

예문(16)(17)의 「乙」는 일본어 「お疲れさま, お疲れ」의 의미로 키보드로 일본어 「おつ」를 입력하면 제 1변환이 「乙」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터넷 특유의 「誤変換」 신조어다. 특히 게시판에서 스투드나 토픽을 새로 만들었을 때 예문(16)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경우가 많으나 예문(17)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문(18)의 「厨房」의 본래 뜻은 주방 또는 부엌이지만 인터넷상에서의 「厨房」는 「中学生の坊主」를 축약한 「中坊」의 의미를 가진 「誤変換」 신조어이다. 진짜 중학생을 일컫기도 하지만 게시판의 스투드 등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등 중학생 수준의 글 밖에 쓸 줄 모르는 유저를 일컫기도 한다. 예문(19)와 같이 초등학생을 「消防」, 고등학생을 「工房」, 초중학생을 「焼酎」라고 하는 파생어도 생겨났다.

예문(20)는 일본의 유명한 게시판인 2Channel에서 트래픽 현상이 일어나 페이지를 열 수 없는 상황에 나오는 「人多すぎ」가 「誤変換」 되면서 나타난 신조어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하나의 화제로 인해 사람들의 댓글이 쇄도하고 이로 인해 스투드의 진행이 빠른 경우를 「祭り」라고 부르며 이런 스투드는 대부분의 경우 정해 놓은 수만권의 글이 달리게 되면 그 스투드는 종료되어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스투드가 생겨나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 뒤늦게 게시판에 참가한 유저가 「今来た(狀況がさっぱりわからない)俺に三行で説明してくれ。」라고 부탁한 말이 축약되어 「今来た三行」가 되었고 이것이 「誤変換」으로 인해 예문(21)과 같이 「今北産業」로 쓰이게 되었다.

33) <http://yuzuru.2ch.net/test/read.cgi/ff/1317829054/-100>

34) <http://yuzuru.2ch.net/sfe/#7>

35) <http://www2.2ch.net/2ch>

36) <http://toki.2ch.net/test/read.cgi/mukashi/1070680115/101-200>

37) <http://toki.2ch.net/test/read.cgi/news4vptasu/1316964598/>

- (22) Twitter垢のみ削除で画像が消せない問題の対処法³⁸⁾
- (23) Twitterで垢BANされたときの話³⁹⁾
- (24) 嫁が鬼女だった⁴⁰⁾
- (25) 鬼女の目に写る毒女⁴¹⁾
- (26) 喪女だけどいきなりプロポーズされた⁴²⁾

예문(22)의 「垢」는 회원으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자격, 권리를 말하는 「アカウント」의 「アカ」를 「誤変換」한 신조어이다. 「垢」로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진 예문(23)의 「垢BAN」은 「垢」에 영어 「Banishment」의 「Ban」이 붙어 생겨난 신조어로 네트워크 서비스에 회원으로 로그인할 자격을 박탈당했음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예문(24)의 「鬼女」란 2Channel의 잡담계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시판 「既婚女性板」이 어원으로 「既婚女性」를 생략한 「既女」를 「誤変換」해서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既女」라고 하면 멋진 부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既婚女性板」의 내용이 매우 과격하여 「鬼女」로 변하게 되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예문(24)-(26)은 다른 「誤変換」 신조어와는 다르게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는 보기 힘들고 단어가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誤変換」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예문(25)는 「独身女性」에서 예문(26)은 「モテない女」로부터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誤変換」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컴퓨터의 일반화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었고 「略語」 신조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유와 편리성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단어가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이유가 부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6. 나오며

이상으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에 대해 일본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8) <http://cutplaza.chu.jp/blog/2012/06/twitter-indelible-images>
 39) <http://maname.hatenablog.com/entry/2011/11/08/232657>
 40) <http://channelz.blog118.fc2.com/blog-entry-1980>
 41) <http://sagisou.sakura.ne.jp/~sakuchin/kazumi/06/24>
 42) <http://kijomojo.blog.fc2.com/blog-entry-247>

- (1) 인터넷 신조어는 여러 법칙에 의해서 생겨나고 파생되는데 그 법칙은 컴퓨터의 일반화와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이러한 신조어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빠른 의사소통, 정보전달을 위해 주로 청소년과 누리꾼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터넷의 사용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과의 소통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불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으로부터의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 (3) 사회문화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단순히 KY식 일본어나 축약과 생략 위주의 조어법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더욱 간편해져 소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유행어로 발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빨리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6)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소속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조어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신조어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김현채(2011) 「신어유행어를 통해 보는 현대 일본의 시대상 : 수상과 관련된 신어유행어 대상어 중심으로」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혜·이경규(2011) 「일본어 신조어 생성의 특징에 관한 고찰 : 웹사이트 텍스트의 용례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32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양은모(2007) 「한·일 어휘 비교 연구 : 신조어 및 유행어를 중심으로」세종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금나(2009) 「일본어교과서에 반영된 일본문화에 관한 조사 : 특히, 한국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 2차~7차까지의 분석을 중심으로」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창웅(2004) 「통신언어의 전이 양상과 지도 방안 연구」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자(2005) 「한국의 언어문화와 국어교육」『국어교육』제117호
- KDI 경제정보센터(2000) 『디지털 경제용어』매일경제신문사
- 金田一春彦 外編(1988) 『日本語百科事典』大修館書店
- 米川明彦(1995) 「新語と造語力」『日本語学』3, 4月号 明治書院
- _____ (1994) 「若者語をは」『日本語学』12月号 明治書院

【참고 Site】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2Ch 용어집」 <http://2channel-vocabulary.com/>

「同人用語の基礎知識」 <http://www.paradisearmy.com/doujin/>

「2channel」 <http://www.2ch.net/>

「네이버 어학사전」 <http://dic.naver.com/>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要旨>

일본어 신조어 생성에 관한 일고찰 -인터넷의 발달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본고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일본어 신조어 생성에 대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터넷 신조어는 여러 법칙에 의해서 생겨나고 파생되는데 그 법칙은 컴퓨터의 일반화와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이러한 신조어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빠른 의사소통, 정보전달을 위해 주로 청소년과 누리꾼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인터넷의 사용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과의 소통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불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으로부터의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 (3) 사회문화가 변화, 발전함에 따라서 단순히 KY식 일본어나 축약과 생략 위주의 조어법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더욱 간편해져 소수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유행어로 발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빨리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6)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소속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조어에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신조어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ploration on the Creation of Japanese Neologisms -Centering upon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ts ensuing Influences on it-

This research explored characteristic patterns emerging from Japanese neologisms being created as the Internet continues to develop and evolve itself, by looking into websites.

Its results are as follows:

- [1] Internet neologisms tended to be form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a wide range of principles or rules that were derived primarily from “social factors”, such as i.e. the popularization of computer and the ensuing wide spread of the Internet.
- [2] These neologisms were created mainly by teenagers and “netizens (*muri-tan*)” for the increased need of even faster (and more effective) communications and delivery of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incessant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Internet. Hence, it is highly noticeable and to a certain extent natural that they led to worsening further the younger generations’ communicational difficulties with the middle-aged less familiar with and exposed to the Internet than the former. Nonetheless, the reason why the neologisms continue to be produced lies largely in psychological factors derived from complains about society, especially those made by the older generations still remaining as vital constituents in society.
- [3] Not merely “KY-style” Japanese and contraction / omission-centered word formation but more diverse neologisms were generated, as society and culture continued to develop and change.
- [4] The further increase in the information sharabi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nabled neologisms invented by minority groups to be spread and diffused even more rapidly, only to become fad words.
- [5] The reason behind the creation of neologisms lied in either (a) a sense of obsession with having to catch up with and to get accustomed to new changes that grows amongst those living in contemporary society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networks or (b) other political and economic grounds.
- [6] The Internet’s capabilities of guaranteeing the anonymity of its users enable people to communicate more freely by relieving themselves from such psychological pressures a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belonging / allegiance to certain communities (both online and offline). Hence, most of Internet neologisms created tended to imply negative meanings.